

‘내정설’ 화가 조진호씨 광주시립미술관장 선임

특정 학교 독점·계파 갈등 해소하고

시민 위한 미술관으로 거듭나야

학예실 중심 조직 개편·소장품 구매 투명성 강화

계약직 학예과장도 윤 시장 측근 ‘내정설’ 우려

결국, 윤정환 광주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지역의 중견 화가 조진호(62)씨가

광주시립미술관장에 선임됐다. 환영성 전 관장 사퇴 이후 지역 문화계에서는 민선 6기 첫 관장으로 전직이

광주시는 지난 24일 신임 광주시립미술관장에 조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급(4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선임 배경=이번 공모에는 조씨를 비롯해 지역 중견 화가 1명, 지역 출신의 큐레이터 1명 등 모두 3명이 지원했다.

이름은 “들러리는 하지 않겠다”며 공모에 접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선결 과제=조 신임 관장이 선임됨에 따라 광주시립미술관은 개관 이후 행정직 5급 공무원이 관장을 맡았던 1,

2대를 제외하고는 지역 화가들이 관장을 역임하는 ‘전통’을 또 이어가게 됐다.

이름은 반대로 조 신임 관장에게 주어진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 지역 미술인들이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관장을 맡으면서 이로 인한 출신 학교별 줄세우기와 계파 갈등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미술관이 기획한 일부 전시회의 초대 작가들이 작품이 아닌 출신 학교와 친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시민’이 보고 싶은 전시가 아닌 ‘지역 작가’들을 위한 전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또한 해마다 6억~7억원에 달하는 미술관 소장품 구매 절차도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 그동안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 구매가 끝나면 지역 미술계에서는 ‘미술관 인맥이 없으면 작품을 못판다’, ‘작품 가격의 몇 %를 줘야한다’ 등 ‘살’이 난무했다.

시민대상 문화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문학 열풍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상록인문학강좌와 강사진을 보다 전문적으로 강화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들이 보다 쉽게 미술관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조직 개편=내년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2015광주U대회 등 국제행사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획을 위해서는 광주시립미술관의 비정상적인 조직 체계의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의 꽃’으로 불리는 학예실장이 없는 보기 드문 미술관이다. 지난 2012년 교육홍보과 신설을 위해 조직을 ‘1실3과1분과’에서 ‘5과’로 개편하면서 학예실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학예실이 사라졌다.

학예실과 학예실장은 미술관의 전체적인 전시 방향을 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재단과 비유하면 ‘사무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국내 대부분 미술관이 학예실과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큐레이터인 학예 실장을 중심으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학예 1, 2과 나니 광주시립미술관의 체계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미술계에서는 전시 기획력이나 국제적인 감각이 부족한 조 신임 관장에게 외부 전문가 출신의 학예 실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벌써 윤 시장과 친분이 있는 일부 지역 미술인이 학예 실장 격인 계약직 학예과장 자리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학예 과장마저 내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미술인은 “신임 관장이 큰 틀에서 미술관이라는 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신임 관장은 11월 초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다섯 대 피아노의 선율... 전을

광주C·N피아노 10주년 기념 내달 1일 연주회

‘다섯 대의 피아노가 들려주는 멜로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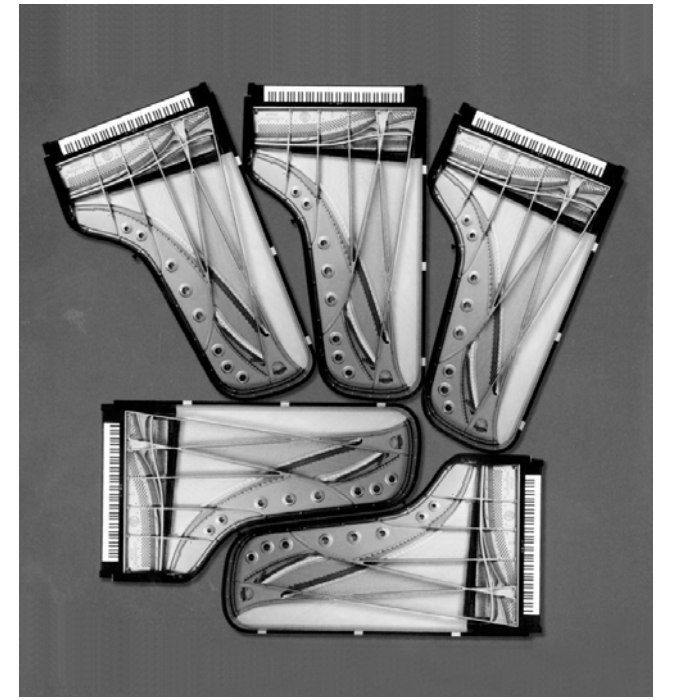
광주C·N피아노(회장 유정아)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광주C·N피아노는 전남대 사범대학과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이들이 함께 만든 피아노 그룹이다.

오는 11월 1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10주년 기념 음악회는 다섯대의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는 ‘그랜드 페스티벌’로 꾸민다.

연주 레퍼토리는 바흐의 ‘칸타타’, 차이코프스키의 ‘이탈리아 카프리치오’와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요한 스트라우스의 ‘푸른 나뭇잎 왈츠’, 히차투리안의 ‘사브레 댄스’, 비제의 ‘카르멘 조곡’ 중 ‘아리고네이즈’, 영화 ‘스팅’의 주제곡 ‘더 엔터테이너’ 등이다.

유정아·황미경·한정숙·정환숙·박현숙·이재선·최선희·조신미·주연화·심아효·김경애·최지숙·장훈화·윤혜옥씨 등 30여명의 연주자가 출연한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北 어린이 위해 빵 만드는

‘가을에 더 예쁜 당신’

김원중 달거리, 오늘 빛고를 시민문화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빵 만들기 공연 김원중 달거리 10월 행사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달의 주제는 ‘가을에 더 예쁜 당신’. 출연진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광주 아루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씨와 피아니스트 박의현, 샌드 애니메이션 작가 주홍, 바다 프로젝트(임용·김영훈·김현우), 느티나무밴드(정은주·조성우·박우진·

송기정)다.

무대를 장식하는 이달의 화가는 서양 화가 문명호씨다. 신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의미술대전·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신작전, Kama, 전업작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입장료는 없으며 공연 후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정성을 더하면 된다.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별발동인 동시 작품집 ‘난 네가 좋다’

어른에게도 때문지 않은 동심을

별발동인 동시 작품집 ‘난 네가 좋다’(통권 28호)가 나왔다.

동심을 지향하고 참신한 서정성을 추구한다는 모토로 시작한 별발동인은 이번 작품집에서도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마음을 시로 형상화한다. 공공로, 김관식, 서원웅, 양희성, 윤삼현, 이옥근, 이정석 시인은 일상의 소소한 소재를 저마다의 개성적인 시어로 노래한다.

수록된 동시는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시작 자아의 폭이 넓다. 어린이에게는 아름다운 정서를, 어른들에게는 때문지 않은 동심을 나누어 주려는 동인들의 소박한 바람이 구현된 것이다.

한편 작품집에는 ‘동인작품 길게 읽기’ 코너가 마련돼 있어 동인들 간의 선의의 창작동기를 부여한다. 이정석 시인은 ‘조기호 동시문학에 나타난 ‘꿈’ 특성’을, 윤삼현 시인은 ‘이정석 문학, 두드림 그리고 개간기’를 통해 아동문학의 미학을 조명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춘추작가회 연간집 ‘꽃인들 전을하지...’

호남 문인-세계문학 상관관계는



문학춘추작가회(회장 노남진)가 발행하는 연간집 ‘꽃인들 전을하지 않겠다’가(통권 19호)가 나왔다.

특집으로 다룬 지상세미나는 ‘전남·전북 문학의 만남과 한국문단’ 주제로 이명재(중앙대 교수) 평론가가 전남·전북 문인들과 작품을 조명했다. 이 평론가는 호남문단 엘리트 문인의 중앙문단과 세계문학과의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또 다른 특집으로 허소미 시인이 지난 7월에 열렸던 문학춘추작가회 세미나 현장을 다녀온 참관기와 임인택 수필가의 혼불문학관 방문 등 ‘1박2일 문학기행’이 수록돼 있다.

이밖에 연간집에는 시, 시조, 동화, 수필, 소설 등에 걸쳐 80명 작가들 신작 219편과 지난 1년 간의 문학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화보가 실려 있다.

노남진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소통부재와 불균형 심화로 사회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작가들이 수준 높은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입문의 1855-0000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헬로tv UHD방송이란?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지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지에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1855-1008)

www.cjhellovision.com